

카메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카메룬(Republic of Cameroon)

I. 일반개황

면적	475천 km ²	G D P	221억 달러(2008년)
인구	18.9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1,159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CFA F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447.81(2008년)

- 아프리카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카메룬은 한반도의 2.2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18.9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차드,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아프리카 제 11위의 산유국(일산량 87.4천 배럴, '08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석유 생산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산업 다각화를 통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의 탈피가 절실히 요구됨.
- 정치적으로는 비야(Biya) 現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이 고질적인 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2.3	3.2	3.3	3.9	-0.1
재정수지/GDP	3.9	3.6	4.9	2.0	0.8
소비자물가상승률	2.6	3.1	2.9	2.5	2.8

자료: IMF, EIU

□ 저조한 경제성장세 지속

- 2005-08년 카메룬 경제는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 인프라 투자와 열악한 기업환경에 따른 부진한 FDI 유입 등으로 인해 연평균 3.2%의 비교적 저조한 경제성장을 시현 하였음.
- 2009-10년에는 농업 부문이 호조세를 보일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되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FDI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각각 -0.1%, 1.4%에 그칠 전망이다.

○ 석유 일산량 : 87,400 배럴('08) → 84,500 배럴('09-'10)

□ 재정수지 흑자기조

- 재정수지는 동국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국제유가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2005년부터 정부가 IMF와 더불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산유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8%, 1.1%로 둔화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 소비자물가는 그동안의 국제유가 및 국제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축소 노력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된 물가 상황을 유지해 왔음.
- 2009-10년에도 정부의 공공지출 축소 노력과 더불어 국제 식료품 가격 안정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평균 2%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카메룬은 석유산업이 총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이 동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1985년까지만 해도 석유 일산량이 18.6만 배럴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신규유전 발굴 부진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2008년 동국의 석유 일산량은 87.4천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2009-10년 중에는 평균 84.5천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낙후된 전력 인프라

- 현재 농촌 가구의 5% 정도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전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가구는 장작과 목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동국의 국영 정유공장인 Societe Nationale de Raffinage(SONARA)가 일 42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이 증질유로 대부분의 원유를 인접국인 나이지리아와 적도기니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총 전력발전 중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동국의 높은 수력발전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만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력발전의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 카메룬 정부는 현재 수력발전 개발을 목표로 댐 건설(Lom Pangar댐, Nachtigal댐, Memve'ele댐 등)을 추진 중

□ 열악한 기업환경

-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표(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카메룬은 총 181개국 중 164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높은 세율과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에 의한 것으로 주변국인 가나, 나이지리아와는 50위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어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 풍부

- 카메룬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03년 광업 투자 촉진을 위한 광산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광산 분야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간의 모임을 적극 주선하는 등 광물 자원개발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국의 니켈, 망간 및 코발트의 매장량은 총 54.7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부터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2년부터는 24억 톤 규모의 철광석, 2013년부터는 12억 톤 규모의 보크사이트 개발이 계획되어 있음. 지난 2008년에는 736백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의 매장량이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향후 동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

- 현재까지 카메룬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1,570억 입방미터에 달하나, 전문가들은 최대 5,7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동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해 나아갈 계획이며, 현재 영국계 석유회사인 Bowleven社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정책성과]

□ PRG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 카메룬은 2005-08년에 걸쳐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을 시행해 왔으며,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적인 운용, 산업다각화 달성, 민영화 촉진 등 PRGF 프로그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09년 6월에는 IMF가 카메룬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완화 목적의 'Exogenous Shock Facility(ESF)' 144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국제기구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777	-151	-547	12	-486
경 상 수 지 / G D P	-5.2	-0.9	-2.9	0.1	-2.3
상 품 수 지	375	670	295	512	-145
수 출	3,265	3,849	4,345	4,816	3,581
수 입	2,890	3,179	4,050	4,303	3,726
외 환 보 유 액	965	1,735	2,932	3,091	2,317
총 외 채 잔 액	7,195	3,171	3,198	3,091	3,159
총 외 채 잔 액 / GDP	47.7	19.2	17.0	14.0	15.0
D . S . R .	20.2	11.1	9.9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는 그동안의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석유, 코코아 등의 농산물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흑자기조를 지속해왔음.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26%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의 적자전환이 예상됨.
- 경상수지는 해운업, 보험 및 관광 분야에 대한 꾸준한 서비스 지출

증가로 인해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계속되고, 소득수지 또한 외국 기업의 투자수익 송금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상품수지: 3.0억 달러('07) → 5.1억 달러('08) → -1.5억 달러('09)
- 서비스수지: -8.7억 달러('07) → -6.1억 달러('08) → -5.3억 달러('09)
- 경상이전수지: 4.2억 달러('07) → 4.4억 달러('08) → 4.4억 달러('09)
- 소득수지: -3.9억 달러('07) → -3.3억 달러('08) → -2.5억 달러('09)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양호

-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음. 이에 따라, 2005년 9.7억 달러에 달하던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한 약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규모는 2002년까지만 해도 GDP의 약 100%에 육박하는 등 외채 부담이 매우 과중하였으나, 2006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를 달성하면서 외채부담이 반감한 이래 양호한 외채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 총 외채잔액/GDP: 17.0%('07) → 14.0%('08) → 15.0%('09)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집권당 카메룬인민민주운동(RDPC)의 장기집권체제 지속

- 1992년 복수정당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폴 비야(Paul Biya) 現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카메룬인민민주운동(Rassemblement Democratique du Peuple Camerounais: RDPC)은 프랑코폰 중심의 굳건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1982년부터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음. 특히 2004년 10월에는 비야 現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면서, 집권 여당의 정치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음.
- 한편 최근 집권당 내에 신·구세대 간 분열조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권력에 편향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단합이 부진한 앵글로폰 중심의 야당세력으로 인해, 오는 2011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낮은 민주주의 수준

- 최근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2008년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에 의하면, 카메룬은 총 167개국 중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12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주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31위) 등 여타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는 무엇보다도 매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는 투표조작 의혹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함. 아울러 높은 문맹률, 빈곤 상황 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임.

* 지난 2009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12명이 취임하면서 카메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 하였음. 그러나 비야 現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12명 중 9명이 전직 정부, 여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는 매우 어려워 보임.

□ 주요 서방국가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카메룬 정부는 그동안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들과는 오랜 기간 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특히 프랑스는 카메룬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이래, 카메룬의 최대 무역국 및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과는 1990년대 미국이 카메룬 내 부패 및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나, 최근 카메룬이 속한 중부 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CEMAC) 회원국인 적도기니 및 차드의 석유 생산량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동 지역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카메룬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음. 비야 現 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며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임. 미국과의 경제교류는 Exxon Mobil社 및 Chevron Texaco社에 의한 차드-카메룬 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완공('03)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와의 갈등 지속

- 1993년부터 지속된 바카시(Bakassi)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나이지리아와의 분쟁은 지난 2008년 동국 정부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영유권을 반환 받으면서 해결된 바 있음. 그러나 동 지역에서 활동 중인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국민에 대한 기존 권리가 보장

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갈등은 또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종족 - 종교세력 간 갈등 상존

- 카메룬은 다양한 종족 및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Cameroon Highlanders족이 총 인구의 31%, Equatorial Bantu족이 19%, Kiridi족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Fulani족, Northwestern Bantu족, Eastern Nigritic족 등 다양한 종족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 언어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기는 하나, 200여개 이상의 고유 언어들이 종족별로 사용되고 있음. 종교적으로도 총 국민의 40%가 토착종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40%가 기독교, 20%가 회교로 다양한 종교적 분포를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종족·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특히, 카메룬 정부요직에서 총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앵글로폰이 배제되고, 유전지대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서남지역(앵글로폰 거주지역)의 수익이 프랑코폰 위주로 분배되는 등 산재한 갈등 요소로 인해 국지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바카시(Bakassi) 반도의 치안불안 양상 지속

- 바카시(Bakassi) 반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93년부터 동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나이지리아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동 사태는 지난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카메룬 정부가 영유권을 인정받고, 2008년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영유권이 반환되면서 해결되는 조짐을 보여 왔음.
- 한편, 동 지역을 둘러싼 치안 불안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인접 나이지리아령 니제르 델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 중인

나이지리아인 무장 세력이 바카시(Bakassi) 반도 반환에 불만을 표출하며 카메룬 정부에 대해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가하는 등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 지난 2008년 11월, 바카시(Bakassi) 반도 인근지역에서 프랑스 Total社가 채굴한 원유를 적재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 되었다가 12일 만에 프랑스, 튀니지, 세네갈 등 관계국들의 협조 하에 인질 전원이 무사 귀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동 지역에 대한 안보 확보가 동국의 시급한 해결과제임을 재천명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관	추이	종전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	D1 (2006. 9)	D1 (2008. 10)
OECD	▲	7등급 (2007. 10)	6등급 (2008. 10)
ICRG	▲	54/140 (2008. 7)	36/140 (2009. 6)
I. I.	▲	124/177 (2008. 9)	123/177 (2009. 3)
Euromoney	▲	148/186 (2008. 9)	110/186 (2009. 3)

- 2008. 10월, OECD는 동국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부진한 인프라 개발, 부정부패로 인한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대외지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과 現 비야 정권의 경제개발 및 재정운용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중기 인수는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개선

- 2006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총 외채규모가 감소한 이래 양호한 외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및 D.S.R.도 비교적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카메룬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11	25	44	알루미늄, 섬유제품
수 입	426	520	231	원유, 레일 및 철구조물
합 계	437	545	275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1년 8월 10일 (북한과는 1972. 3. 3)

□ 주요협정 : 경제통상협력일반협정('75), 무역협정('79)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275백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알루미늄,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44백만 달러, 수입은 원유, 레일 및 철구조물을 중심으로 231백만 달러를 기록

V. 종합의견

- 산유국으로 알려진 카메룬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 인프라 투자와 부진한 FDI 유입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연평균 3%대에 그쳐, 산업다각화 추진과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2009-10년에는 정부의 세수기반 확충 노력과 농업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폴 비야(Paul Biya) 現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다양한 종족·종교세력 간 갈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